

# 박지성 '꿈의 무대' 밟다

## 28 선수 최초 챔피언스리그 결승 선발출전 맨유, 바르샤에 패해 아쉬운 준우승



'산소 탱크'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꿈의 무대'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았다. 하지만 올 시즌 유럽 프로축구 최강의 명문 FC 바르셀로나(바르샤)에 돌아갔다. 바르셀로나는 28일 오전(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8-2009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전반 10분 사뮈엘 에토의 선제 결승골과 후반 25분 리오넬 메시의 추가골로 지난 시즌 챔피언 맨유를 2-0으로 눌렀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2005-2006년 시즌 이후 3년 만에 다시 유럽 프로축구 왕중왕으로 우뚝 서면서 통산 세 번째 대회 우승(전신인 유러피언컵 포함)을 차지해 상금 700만 유로(한화 124억원·준우승 상금은 400만 유로)까지 챙겼다. 또한 올 시즌 스페인국왕컵(코파 델레이)과 정규리그(프리메라리

가)에 이어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스페인 클럽으로는 처음으로 트레블(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올 시즌 바르셀로나 지휘봉을 잡은 서른여덟의 '초보 감독' 호셀 가르디올라는 미겔 무뇨스(레알 마드리드), 카를로 안첼로티(AC밀란)에 이어 한 팀에서 선수와 감독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세 번째 축구인이 됐다.

지난 시즌 대회 결승 엔트리에서 빠져 상처를 입었던 박지성은 이날 선발 출전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결승 무대에 올라 66분을 뛰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호날두의 슈팅이 거꾸터지면서 맨유가 바르셀로나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맨유의 기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오히려 있는 듯했던 바르셀로나의 역습 한 번에 바로 무너졌다.

전반 10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아크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공을 내주자 에토가 골 지역 오른쪽까지 치고 들어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오른쪽으로 차 넣었다. 공은 골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09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격파하고 우승을 차지한 FC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키퍼 에드윈 판데르사르의 왼손에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전반을 0-1로 끌려간 채 마친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후반 시작하면서 미드필더 안드레손을 빼고 공격수 카를로스 테베스를 내보냈다. 테베스와 호날두가 최전방에 선 4-4-2 포메이션으로 바뀌면서 박지성은 왼쪽 미드필더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후반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맨유는 후반 21분 박지성을 불러들이고 스트라이커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를 내보내

며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4분 뒤인 후반 25분 메시의 헤딩 추가골로 추격 의지가 완전히 꺾였다.

사비가 미드필더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골문 왼쪽에 있던 메시가 솟구쳐 올라 헤딩으로 돌려놓아 골망을 흔들었다.

프리미어리그와 프리메라리가 챔피언 간 '세기의 대결'에서 바르셀로나의 완승을 알리는 결정타였다. 아르헨티나 축구 스타 메시는 11경기에서 9골을 뽑아 대회 득점왕까지 차지했다.

## “지성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 태극전사들 한목소리 찬사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B조 6차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정경기에서 나설 태극전사들은 한목소리로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출전을 자랑스러워했다. 대표팀 마형 이운재(35·수원)는 28일 경기도 파주 NFC에 소집하기 전 인터뷰

에서 2008-2009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66분간 출전한 박지성에 대해 “대견스럽고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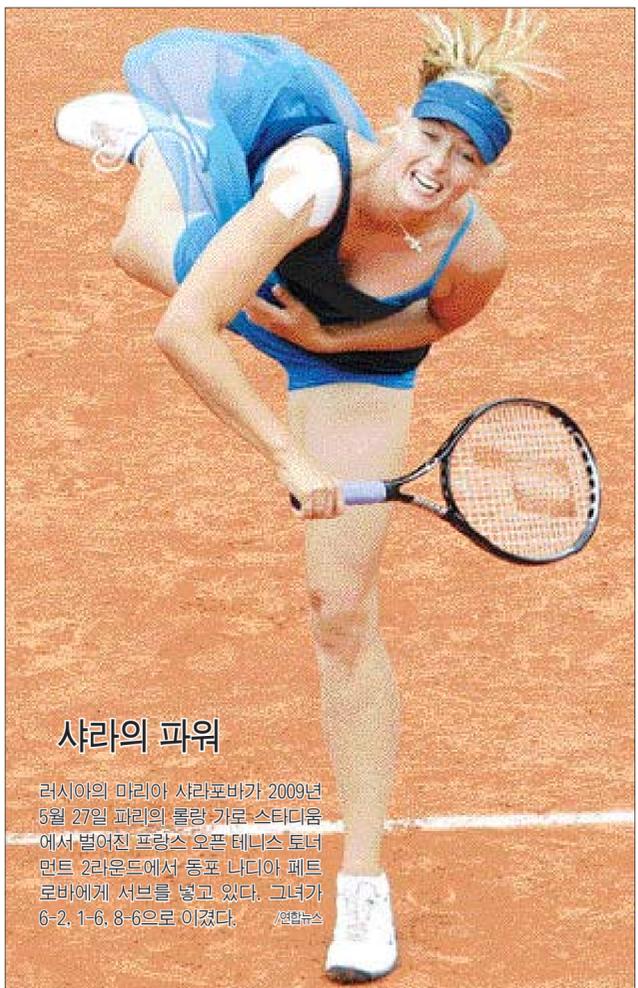
조원희(26·위건)도 “많이 아쉽지만 지성이 형이 아시아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세계적으로도 좋은 경기를 했다”고 흐뭇해했다.

새벽에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보느라 피곤하다는 이정수(29·교토) 역시 “같은 한국 대표 선수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저도 그런 무대에서 뛰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수비수 김형일(25·포항)도 “지성이 형에게 사인받고 싶다. 대한민국 선수로서 그런 큰 무대에 서는 것은 꿈이자 희망이

다. 그 꿈을 이룬 지성이 형이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다시 대표팀에 합류한 최태욱(28·전북)도 “맨유가 졌는데 박지성을 위로해 줄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나서 “그런 경기에 뛰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 샤라의 파워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가 2009년 5월 27일 파리의 톨랑 가로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프랑스 오픈 테니스 토너먼트 2라운드에서 동포 나디아 페트로바에게 서비스를 넣고 있다. 그녀가 6-2, 1-6, 8-6으로 이겼다.

## 무명용사들의 거센 진격

### 광주상무, 내일 스타군단 FC 서울과 일전

#### '허정무호' 탈락 최성국 골사냥



'스타군단'을 향한 '무명 용사'들의 거센 공격이 펼쳐진다.

광주 상무가 30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찾아 FC 서울과의 2009 K-리그 경기를 갖는다. 서울의 요청으로 17라운드 경기를 앞서 치르게 된 상무는 조지력을 앞세운 승부로 서울전 2연승에 도전한다.

정규리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무는 7승2무1패의 무서운 저력으로 전반기 내내 승승장구했다. 반면 4위 서울은 초반 2연승으로 1위 자리를 지키다가 2무2패로 4라운드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7위까지 내려가는 등 '1위 후보'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초반 절름이 더뎠다.

성적 상으로는 상무가 웃고 있지만, 얼마 전 허정무호에 승선할 대표팀 명단이 발표된 뒤 양팀의 표정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스타군단' 서울의 김치우·기성용·이청용은 예상대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하지만 팀의 놀라운 상승세와 맞물려 기대를 모았던 상무에서는 허정무 감독의 부름을 받은 이가 없었다.

특히 김병중과 최성국이 K-리그 최상의 골감각을 선보이며 각각 6골과 5골을 터트린 데다, 김용대가 신들린 선방으로 돌풍 중심에 섰던 만큼 상무 팬들의 아쉬움은 컸다.

국가대표선수 하나 없는 '무명 용사' 상무 선수들은 팬들의 아쉬움을 서울전 2연승 행진으로 달래겠다는 각오다.

상무는 지난 3월21일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최성국의 결승골로 1-0의 승리를 거두며 올 시즌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거라는 것을 예고했었다.

상무는 서울전 승리로 본격화 된 올 시즌 돌풍을 또 다른 서울전 승리로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주 11라운드 대구원정에 나선 상무는 3-1 승리로 2무7패의 '대구 무승 징크스'에서 탈출하며, 23일 만에 K-리그 1위를 탈환했다.

전북이 11라운드 경기에서 인천과 0-0으로 비긴 사이, 승점 2점 차로 1위 자리에 재입성한 상무는 미리 치르게 된 서울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해 느긋하게 1위 독주를 즐기겠다는 생각이다.

변함없이 '리를 마라도나' 최성국과 '골명종' 김병중이 공격 전면에 나설 계획이고, 3골을 기록중인 중원의 지휘자 최원근도 서울 골문을 겨냥하게 된다.

상무의 1위 굳히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근 매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특급용병' 데안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국가대표 미드필더 기성용·이청용·김치우가 버티고 있는 허리싸움도 이번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09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FC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아시아 최초로 챔스 결승에 참가한 맨유의 박지성이 그리운대로 힘차게 나오고 있다.